

金 時 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꽃의 이미지를 應用한 陶磁 壁裝飾 研究

2007

誠信女子大學校 ART&DESIGN大學院

造形藝術學科 産業陶磁器專攻

楊 知 耘

꽃의 이미지를 應用한 陶磁 壁裝飾 研究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ART&DESIGN大學院

造形藝術學科 産業陶磁器專攻

楊 知 耘

認 准 書

楊 知 耘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ART&DESIGN大學院

論 文 概 要

자연과 인간의 교감은 문명이 시작되면서 부터 필연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 교감은 예술로서 승화되기도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예술적 미감을 낳게 하는 모태가 되었기에 자연을 대상으로 한 예술적 표현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중 꽃은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심취하여 예술표현의 좋은 소재로 등장되곤 하였다.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종교적 입장이나 삶을 통하여 형성된 정서와 정신적 가치가 꽃과 서로 소통하였을 때, 생기는 상징적 의미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였기에 우리 선조들은 건축물이나 공예품, 그리고 의복이나 장신구 등에 꽃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꽃과 인간의 삶의 의지·정서를 교호하여준 선조들의 꽃에 관한 심상을 전통 예술품 안에서 보이는 다양한 꽃문양을 통하여 연구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서와 교감할 수 있는 꽃에 대한 미의식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의 주거문화와 자연의 상호 아름다운 부분의 요소를 모색하고 자연의 일부인 꽃을 생활공간으로 끌어냄으로써, 현대인의 미적 사유로 공감할 수 있는 도자 벽장식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일품 공예적 의미와 양산을 고려하여 석고틀에 의한 이장주입 기법, 가압기법으로 성형하였다. 1차 소성은 850℃에서 하였고, 유약은 생유(투명유, 청자유)와 착색 산화물이 첨가된 유약(코발트유, 철유, 오토밀유), Duncan사의 고화도 유약을 사용하였으며 2차 소성은 1250℃에서 소성하였다. 또한 중·저화도 유약을 시유한 기물은 1030℃에서, 수금장식이나 전사장식을 한 기물은 800℃에서 3차 소성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현대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도자 벽장식을 제작함은 도식화된 환경과 순수한 자연의 교량적 역할을 제시하고, 주거공간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內容 및 方法	2
II. 本 論	4
1. 꽃의 造形的 考察	4
1) 꽃의 情緒	4
2) 傳統紋樣에 나타난 꽃의 思惟	6
2. 色彩의 心理	10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15
1) 製作意圖	15
2) 디자인 展開	17
3) 製作過程	18
4) 試作品 說明	26
III. 結 論	45

參 考 文 獻

ABSTRACT

表 目 次

【표 1】 꽃의 종류에 따른 꽃말	5
【표 2】 색의 연상	11
【표 3】 태토(자기질 점토)의 조성비	18
【표 4】 유약 조합비	21
【표 5】 코발트유(산화코발트 첨가량)	21
【표 6】 초벌용 화장토 조합비	22
【표 7】 초벌용 화장토와 고화도 안료 혼합비	22
【표 8】 중·저화도 유약	22
【표 9】 고화도 유약	23
【표 10】 고화도 유약	23
【표 11】 소성 온도표	25

圖 目 次

【도판 1】	백제 무령왕릉 묘실 전돌	13
【도판 2】	불갑사 대웅전 꽃 창살	13
【도판 3】	청자상감국화·모란문 과형병	13
【도판 4】	경복궁 연군문 꽃담	13
【도판 5】	연꽃무늬 전돌	13
【도판 6】	꽃무늬 떡살	13
【도판 7】	경복궁 자경전 서쪽 꽃담	13
【도판 8】	홍순정 作	14
【도판 9】	윤지영 作	14
【도판 10】	조성민 作	14
【도판 11】	신영택 作	14
【도판 12】	스기에 준페이 作	14
【도판 13】	김현수 作	14
【도판 14】	이숙량 作	14
【도판 15】	이재삼 作	14

試 作 品 目 次

【시작품 1】	꿈속을 거닐다	26
	試作品 設置 假想圖 I	27
【시작품 2】	그날이 오면 I	28
【시작품 3】	圖面	30
	have a dream I	31
	試作品 設置 假想圖 II	32
【시작품 4】	그날이 오면 II	33
【시작품 5】	圖面	35
	나지막이 기도하다	36
【시작품 6】	꽃비 내리는 날 I	37
【시작품 7】	꽃비 내리는 날 II	39
	試作品 設置 假想圖 III	40
【시작품 8】	have a dream II	42
【시작품 9】	꽃비 내리는 날 III	43

I . 序 論

1. 研究目的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면서 자연을 배우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형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란, 인간(예술가)과 자연(작품의 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조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술가가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外界)의 자연을 표현하는데 나타나는 기술상의 과정”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가 바뀔에 따른 자연의 모습 역시 다양하게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꽃’의 아름다운 이면에 존재하는 상징과 정서를 시대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주거공간에 심미적 차원으로서 접근함으로써 그에 알맞은 도자 벽장식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을 경외하고 역사에 녹아든 조형적 의미를 유현한 정신문화의 자양분으로 해석하고 또한 그로부터 갖게 되는 감정과 경험, 무한한 상상력을 반영하여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현대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도자 벽장식을 주거 공간 속에 연출함으로써, 편안한 안식의 공간을 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H. Read, 『The Philosophy of Modern Art』, Horizon Press, 1953, p.73

2. 研究內容 및 方法

예술가에게 있어서 사물은 단순히 육안을 통한 외면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안을 통해 그 내면성을 투시해서 조형적인 질서를 찾아내고 이를 발판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하며, 선택이란 곧 하나의 새로운 관점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든 조형 작품의 다양성은 그 작품의 대상이 가시적이든 관념적이든 그것을 대하는 ‘관점’에 달린 것이다.²⁾

본 논문은 우리의 문화유산 가운데 꽃과 관련한 내용들을 본인의 정제된 체험을 통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한 시대별 꽃의 아름다움을 조망하는 이해와 더불어 관념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사유하는 꽃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자는 향기가 있는 꽃·자태가 아름다운 꽃, 작은 꽃에서부터 한적한 들판에 피는 청빈하고 애절한 꽃들에 이르기까지 박제화 된 가시적인 아름다움 뿐 만 아니라, 자아의 내면적 심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이면의 아름다움에 감동받게 되었다. 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세계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꽃에 대한 정감을 생활 속에 도입시켜 자연의 일부를 실내공간에서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관조방법으로 예술의 개성적 연출과 동양미의 근간인 관념적 해석으로 접목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첫째, 선조들이 남긴 꽃에 관한 문헌이나 건축물, 공예품 등 자료를 통하여

2) 김수평, 『조형의 원리』, 대한성공회 출판부, 1976, p.75

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현대와 유관한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둘째, 대중의 색채심리를 고찰한 후 작품제작에 색채의 의미를 부여하여, 생리적·심리적 현상과 아름다움의 근원적 입장과 인간의 정서적 회복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셋째, 꽃의 조형적 가치를 토대로 반추한 인간의 의식의 편린들이 점토라는 소재를 통하여 건조한 도시주거공간의 환경을 부드럽게 순화시켜주고 질적으로 환경 개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자 벽장식을 제작함으로써 경직된 일상생활에서 따스한 자연으로의 회향을 꿈꾸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현대화된 세련된 표현을 위하여 형태를 단순화·이미지화하여 석고틀에 의한 이장주입기법으로 성형하거나, 자연스러운 자연 본연의미를 부각하고자 점토의 가변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였다. 태토는 벽면 설치를 위해 가볍게 하고, 유약의 발색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기질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약은 시작품의 내용에 따른 각각의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유색 유약을 사용하여 시유하였고, 수금과 전사지의 사용으로 장식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기물은 산화소성을 하고, 상황에 따라 환원소성을 하였다.

Ⅱ. 本 論

1. 꽃의 造形的 考察

1) 꽃의 情緒

자연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활과 예술 활동에 미를 창조하는 무한한 대상을 제시한다. 그 중 꽃은 자연의 형태에서 미의 결정체로 간주되어 완벽한 형태의 미와 색채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생활상과 종교적인 신비로움과 어우러져 각각의 이미지³⁾로 투영되어져 왔다. 즉 꽃에 대한 심상은 생활 감정의 표출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꽃을 대하면서 그 형태나 색이 아름답다거나 향기가 좋다거나 하는 물리적 조건의 미로만 생각하지 않고, 꽃이라는 자연의 일부분과 인간의 정서와 가치관이 서로 교감하며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했던 생활의 단면들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심리적 효과와 감동 등의 상징적 가치를 더 존중하였다.

꽃이 가진 상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곡선의 우아미가 넘치는 외형이나 형형색색으로의 꽃은 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되어왔다. 아름다운 사물이나 사람을 칭할 때 흔히 ‘꽃

3) Rene Hueghe,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60, p.91

‘이미지’는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 세계, 대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세계와 변화무쌍한 세계의 조형적 활동에 의하여 새로운 영적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화'를 사용하여, 화사한 미인의 자태를 '화월용태(花月容態)'라 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화안(花顏)'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화의(花衣)'라 하였다.

둘째, 번영·풍요를 상징한다.

겹겹이 쌓인 꽃잎이 만개하는 탐스러운 꽃의 모양과 멀리까지 그윽이 풍기는 향과 번식력으로 번영과 번창, 영광스러움을 나타낸다. 회혼례에 등장하는 꽃은 자손의 번영을 바라는 의미이고, 신라의 금관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와 꽃은 단순한 미적 효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양식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셋째, 재생·영생을 상징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꽃은 시들어 떨어지고도 다시 개화하는 재생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재생의 반복으로 영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꽃에 대한 설화나 전설에서는 선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경우 꽃으로 환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꽃이 된다는 것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획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넓은 의미의 상징이라면 꽃의 특질에 의하여 붙여진 '꽃말'을 통하여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알 수 있다.

<표 1> 꽃의 종류에 따른 꽃말

꽃이름	월계수	연꽃	해바라기	모란	매화	목련	제비꽃	벚꽃
의미	영광	군자 환생	충신	부귀 성실	고결 미덕	연정	겸양 품위	청렴결백 절세미인

2) 傳統紋樣에 나타나는 꽃의 思惟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인간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⁴⁾ 그 아름다움을 항구불변의 것으로 만들어 즐기고자 하였음은 대상을 문양으로 상징화·이미지화하여 도자기, 장신구, 의복 등의 생활품에 장식하였다.

특히, 꽃문양은 꽃 자체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꽃이 지닌 이미지와 아름다움을 빌어 계절감, 자연에 대한 감정,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꽃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신비스럽게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상태로 이끄는 것이다.⁵⁾

꽃문양에 의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① 매화문(梅花紋)

고려시대 이후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른 봄 홀로 피어 봄의 소식을 전하고 맑은 향기와 우아한 운치가 있어 순결과 절개를 상징한다. 또한 늙은 매화의 고고한 자태로 인하여 선비의 아취를 풍긴다 하였다. 선비들의 문방 제구, 부녀자들의 꽃신과 비녀에 많이 사용되었다.

② 목단화문(牡丹花紋)

꽃잎이 탐스럽고 화사하여 화중지왕(花中之王)으로 불리며 외형상의 화려함에 의해 부귀를 상징한다. 병풍과 궁중의 가례복이나 상류층의 혼례복에 주로 쓰였고, 고려시대 청자에서 간결하게 도안되고 쓰이기 시작하여 조선시

4) 주균도, 『미학 에세이』, 청년사, 1989, p.108

5) 박용숙, 『한국의 시원 사상』, 문예출판사, 1994, p.129

대의 분청사기나 청화백자, 철화백자에 다양하게 쓰였다.

③ 연화문(蓮花紋)

연꽃 씨앗의 강한 생명력으로 생명의 창조·번영의 상징으로 애호되었고, 진흙에서 자라지만 오니(汚泥)에 물들지 않는 속성은 불교에서는 청결·순결의 상징물로 바라보고 유교에서는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에 비유하였다. 또한 연꽃의 외형이 축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바퀴살과 같이 됨에 윤회·환생을 나타내는 길상무늬로 애용되었다. 불교 공예의 장식품에 많이 사용되었다.

④ 국화문(菊花紋)

우리나라 식물 문양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 찬 서리를 맞고서도 우아한 형태를 잃지 않는다하여 선비의 절개, 굳은 기상을 표현한다. 고려시대의 도자기와 나전칠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⑤ 난초화문(蘭草花紋)

왕자향(王者香)이라 일컬어지며 난초를 집안에 두면 불상사를 막아주고 자손의 번영과 출세를 가져온다고 믿어 고려시대의 도자기와 조선시대의 문방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⑥ 사엽화문(四葉花紋)

흔히 달맞이꽃이며 고대 미술품에 네 개의 꽃잎으로 표현된다. 네 잎 꽃무늬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생(四生)⁶⁾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니 일종의 보화(寶

6) 태생(胎生): 태를 의지하는 사람이나 짐승류
난생(卵生): 새나 파충류

花)이다. 건축물의 난간장식과 단청, 가구의 장식에 쓰였다.

⑦ 길경화문(桔梗花紋)

깊은 계곡의 풀꽃 사이에서 피어나는 도라지꽃의 청초함을 만인이 칭송하였다. 소박하고 순진한 자태로 청화백자나 자수에 민화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⑧ 백일화문(百一花紋)

백일홍은 이름과 같이 백날을 두고두고 계속하여 피기 때문에 귀한 꽃이라 하여 귀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민화의 소재로 흔히 병풍에 그려지고 조선시대 선비들은 가구와 청화백자에 소담히 그려진 수수한 멋을 좋아하였다.

⑨ 월계화문(月季花紋)

사계절 모두 곱게 피어있으므로 옛 시에 이 꽃을 가리켜 ‘꽃다운 마음이 조금도 쉬지 아니한다.’고 예찬하였다. 불교의 분합문의 창호무늬와 능화판에 새겨져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끊임없이 널리 전한다는 뜻을 지녔다.

⑩ 치자화문(梔子花紋)

아름다움보다는 향기가 맑아 특히 사랑을 받아온 꽃으로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마음을 닦는 친구’라 하였음을 볼 때 이 꽃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주로 불교적인 장식무늬에 나타나는데 건축물의 꽃 창살 무늬 중 여러 꽃과 어울

습생(濕生): 습기를 의지하는 초목

화생(化生): 앞의 태·난·습을 의지하지 않고 저절로 생겨지는 불보살이나 천상계의 신이나 귀신세계

려 빛과 향기를 상징한다.

⑪ 작약화문(芍藥花紋)

함박꽃이라 불리는 작약은 그 색이 노랑·붉은빛·자주빛·흰빛 등으로 다채롭고 청순한 멋이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산 속에서부터 산사나 정원에 옮겨져 심어지고 보전의 꽃 창살무늬에 나타난다.

⑫ 해당화문(海棠花紋)

아름다운 용모를 뜻하는 해당화는 흰 모래밭에서 더욱 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하였으니, 만발했을 때는 비단에 수를 놓은 듯 한 모습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하였다. 화사한 색과 소담스러운 꽃송이를 젊음의 상징이라 하여 여인들의 옷 무늬에 많이 사용하였고 꽃 창살무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⑬ 금잔화문(金盞花紋)

밤이면 오므라드는 특징과 노란 꽃잎 때문에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고려 시대에 꽃잎 모양으로 꾸며진 접시나 주전자 받침 등은 매우 안정감 있고 자연스러운 조형을 보여준다.

2. 色彩의 心理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C를 색채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색채가 활용되고 있다. 색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 심리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인간의 생리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에 의하면 색은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⁷⁾이기에 생활 공간에서의 적절한 색의 사용은 공간의 미적인 현상, 정신적 풍요와 함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색채가 가진 아름다움과 그 밖의 다른 성질에 매혹되어 복잡한 감성을 일으켜서 심리적인 경험의 연쇄를 경험하는 것처럼 색채에 대한 피상적인 연상도 역시 경험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⁸⁾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색의 연상을 통하여 인식되어진다. 색의 연상은 색을 보는 사람의 경험과 기억, 지식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감각, 사상, 사고 등과의 혼합체로서 색의 자극에 의하여 파생되는 심상이다.

색의 연상성은 다음과 같다.

7) 김수석, 『색채의 예술』, 지구문화사, 1976

8) 허영미, 「도시환경 조각과 색채의 상호보완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6

<표 2> 색의 연상

구분	색상	속성	감정의 성질
난색	빨간색	따뜻함 적극적 활동적	· 성호르몬 및 성장호르몬 활성화시켜 마음을 흥분시킴
	주황색		· 생명체와 삶을 비유 · 정열, 행복, 봄, 젊음, 기쁨, 사랑
	노랑색		· 활기 넘치는 대지를 비유 · 몸에 활기, 식욕을 자극 · 건강, 기쁨, 사교적, 명량, 명예 · 희망을 안겨주는 긍정적 기분 유발
	분홍색		· 주목성 높으므로 집중력 향상시킴 · 밝은 미래, 희망, 지혜를 비유 · 쾌활, 긍정적, 발전, 활동성, 따스함 · 태양의 이미지 압시
중성색	초록색	중용 평정 평범	· 주위에 두면 걱정, 근심 줄어드는 효 과있음 · 연민, 무조건적인 사랑
	보라/자주색		· 긴장완화, 안도감, 집중력 고조 · 자연과의 조화,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 · 명량, 건강, 안정, 상쾌, 휴식, 생명, 평화
한색	청록색	차가움 소극적 안정적	· 명상과 자기성찰을 자극하여 정신적 평온함 제공 · 영감과 상상력 높임 · 고귀, 고풍, 우아함, 도회적, 신비
	파란색		· 정신적 피로 풀어주고, 행복감 높임 · 변화의 기회 의미 · 시원함, 상쾌함, 생기
기타	금색		· 마음을 진정시켜 심신의 회복력 높임 · 희망, 이상, 진리, 내향적, 냉정, 상상 · 명상과 기도의 공간, 치료실에 적합
	흰색		· 풍요, 고도의 지혜와 지식 연상 · 호화로움, 권세, 초현실적 현상
	검정색		· 순결, 순수, 조용함, 성스러움, 안락함 · 방어적, 신비스러움, 부동적

비렌(F. Birren)에 의하면 환경 속의 색채는 “인간의 안전과 건강, 생존에 관계된 조정된 환경(controlled environment)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 정의하고, 인간과 자연의 균형과 율동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 내 구조물이 미적 가치를 지키는 길은 올바른 색채사용에 있다고 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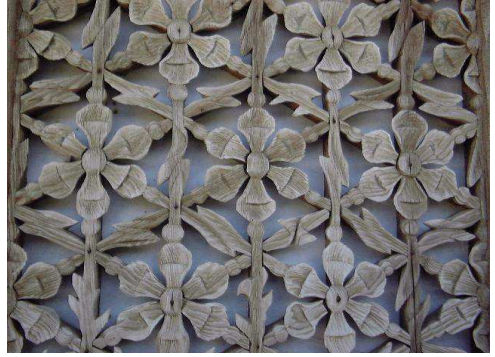
이러하듯 색의 연상을 응용한 생활공간 안에서의 색채사용은 심미적 기능·상징적 기능·심리적 기능을 수반하여 정신적·육체적 만족감을 느끼고 미적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9) 김길홍, 「도시환경 색채와 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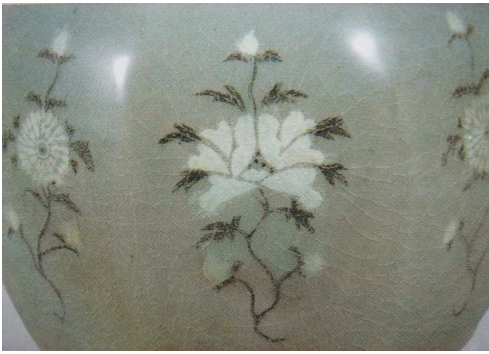
참 고 도 판



【도판 1】 백제 무령왕릉 묘실 전돌



【도판 2】 불갑사 대웅전 꽃 창살



【도판3】 청자상감국화·모란문 과형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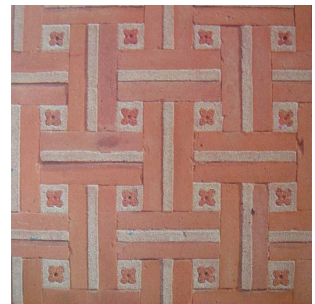
【도판 4】 경복궁 연군문 꽃담



【도판 5】 연꽃무늬 전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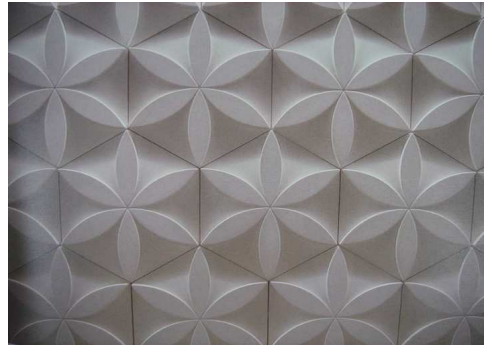
【도판 6】 꽃무늬 떡살



【도판 7】 경복궁 자경전 서쪽 꽃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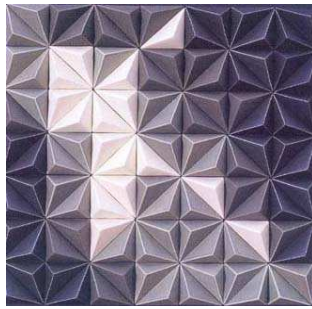
【도판 8】 홍 순 정
Floral Scree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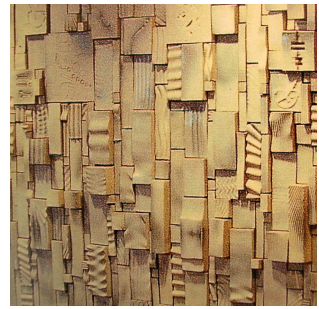
【도판 9】 윤 지 영
꽃담, 1998



【도판 10】 조 성 민
Tradition, 2003



【도판 11】 신 영 택
2002



【도판 12】 스기에 준페이
1975



【도판 13】 김 현 수
Blue Angel Story, 2004



【도판 14】 이 숙 랑
Eye story, 2006



【도판 15】 이 재 삼
꽃담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1) 製作意圖

본 시작품에서는 꽃의 상징적 모습을 감성적 언어로 해석하여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아의 정서적 이상으로 구현하여 창조적 공간구성에 부합하는 도자 벽장식을 제작함으로써 개성적인 공간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작품의 표현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시적인 조건보다 내면에 담겨있는 정신과 사상을 통해 아름다움을 조망하던 선조의 미의식을 탐구하여 꽃의 진정한 미의 가치관을 모색하였다.

둘째, 꽃의 내적 이미지를 시대적 관점을 통하여 현대인이 대립구조의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메말라버린 감정·상한 마음 등을 치유하고, 이상의 세계를 제시함으로 풍요로운 정서 안에서 소망의 심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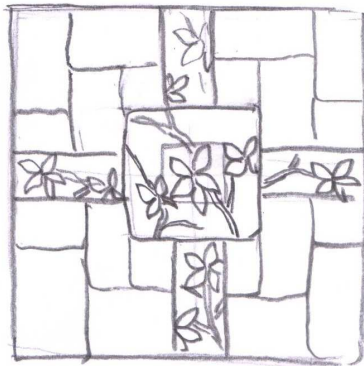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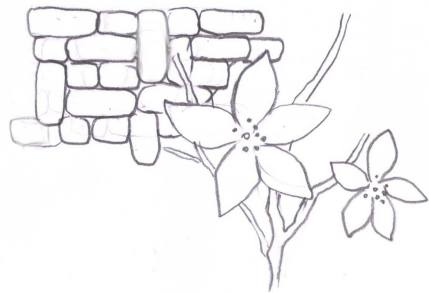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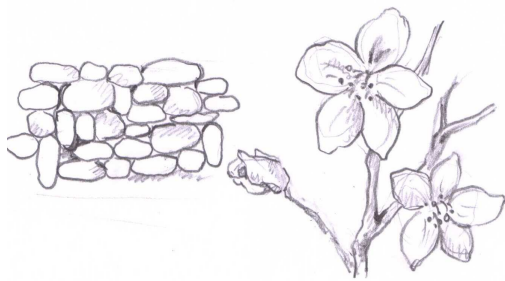
셋째, 도자 벽장식이 갖는 미적·기능적 가치를 감안하여 유희적인 조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률적인 생활공간 안에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넷째, 각양각색의 꽃으로부터 각각의 심상에 어울리는 색감을 반추하여, 색채 심리현상을 유도함과 환경을 고려한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단조로운 실내 공간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움의 재조명을 통하여 현대인의 선원(仙苑)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2) 디자인 展開

【시작품 4】



3) 製作過程

(1) 胎 土

시작품으로 사용된 태토는 도벽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소성과 내화도가 좋아 온도차이로 인한 균열과 이탈현상이 적고, 입자가 미세하여 세밀한 표현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자기질 점토를 사용하였다. 자기질 점토는 백색도가 뛰어나 다양한 꽃의 색상을 표현 시, 색유약이나 색안료 사용을 통한 색감의 발색력이 용이하다.

<표 3> 자기질 점토의 조성비

(%)

원 료	SiO ₂	Al ₂ O ₃	Fe ₂ O ₃	MgO	CaO	K ₂ O	Na ₂ O	TiO ₂	Ig.Ioss	계
성분비	72.69	18.71	0.18	0.05	0.09	2.00	0.69	0.05	5.53	100

(자료 : 고려도토사)

(2) 製 型

모든 원형은 그로부터 얻어진 탈형물이 태토의 건조수축률과 소성수축률로 인하여 작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시작품의 크기보다 15% 확대한 크기로 제작하였다.

완성되었을 때 인위적이지 않고 꽃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욱 더 부각시키기 위해 원형의 일부를 점토로 제작하여 자연스런 질감표현을 하거나, 시각적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질감표현으로써 스펀지·수세미·골판

지·철판 등을 이용하여 석고 원형을 제작하였다.

원형과 틀 제작 시 단시간에 손쉽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우드락을 사용하였다. 작업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작품들의 석고틀은 최소한의 개수를 필요하도록 계획하였다. 기본적으로 ‘ㄱ’모양의 옆면 틀 2개, 주입구 평판 1개를 제작하고, 나머지 1개의 평판의 안쪽에는 각각 다르게 표현하여 석고틀을 바꿔가며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틀 제작에 소비되는 작업시간을 최소화하였다.

(3) 成 形

시작품의 대부분은 섬세한 표현과 같은 형태의 반복을 위하여 이장주입기법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자연스러움을 부각시키고자 점토의 물리적인 속성과 가변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가압기법 등을 사용하여 성형하였다.

슬립의 농도는 건조된 점토 100g에 물 45g, 규산소다 0.5g으로 하였다. 이는 교반 시 슬립에 손을 넣었다가 들어 올릴 때,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생기면서 슬립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정도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정도였다.

석고틀 내부에는 이장주입 후 약 5~8분 후 석고틀 내부의 슬립두께가 5~6mm로 형성되면 남은 슬립을 배출하였다. 슬립을 배출 한 뒤 탈형하기까지 약 20~30분 동안 석고틀의 방향을 틀의 6면에 따라(대부분의 틀은 사각형의 입방체이다.) 약 5분씩 유지시키며 건조함으로써 소성 시 틀어짐과 처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고틀 안쪽의 다양한 질감표현을 보다 섬세하게 하고, 요철이나 거친 표면으로부터 탈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분을 골고루 뿌려주었다.

(4) 釉 藥

꽃이 주는 색채의 이미지에 따라 마음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즐거움을 주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메시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약의 사용은 대부분 부드러운 발색을 유도하여 심상적으로 편안함과 따뜻함을 제공하여 자연색이 주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Duncan사의 고화도 유약을 수채화의 은은한 느낌이 나도록 사용하거나, 오토밀유, 색화장토를 사용하였다. 우수한 도자문화의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청자유를 사용하였다. 또한 청명감을 살리기 위해 산화코발트의 첨가량을 다르게 하여 만든 4단계의 코발트유를 통해 색의 점이 현상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강렬함과 화려함을 위해서 발색이 강한 Duncan사의 중·저화도 유약을 사용하고 전사장식과 수금장식을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한 의미전달의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저화도 유약의 사용 시 이미 재벌 소성이 되어있는 기물 시유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초벌 소성만 되어있는 기물의 시유에는 중·저화도 유약과 기물과의 수축률이 다르기에 유약말림 현상 등의 어려움이 다소 있었다. 하지만 완성 후에는 자연스러운 우연의 효과를 통해 지루하지 않은 시각적 유희성을 연출할 수 있었다.

<표 4> 유약 조합비

(%)

원료구분 \ 유 약		투명유	청자유	철유	코발트유	오트밀유
원료명	화학생분					
카리장석(인도)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37.7	48.0	45.0	48.0
나트륨장석(부여)	$Na_2O \cdot Al_2O_3 \cdot 6SiO_2$	50.0				
석회석(금산)	$CaCO_3$	15.0	19.5		15.0	
규석(부여)	SiO_2	15.0	28.7	4.0	20.0	4.0
카올린(인도네시아)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15.0	12.1	22.0	15.0	23.0
탄산바륨(중국)	$BaCO_3$	5.0			5.0	
백운석	$CaCO_3 \cdot MgCO_3$			22.0		23.0
산화코발트	Co_2O_3				<표5>참조	
산화철(독일)	Fe_2O_3		2.0	4.0		
오트밀						2.0
계		100.0				

<표 5> 코발트유(산화코발트 첨가량)

(%)

단 계 \ 혼합성분	기본유(분말)	산화코발트 첨가비
1단계	100	0.05
2단계	100	0.2
3단계	100	0.6
4단계	100	1.4

<표 6> 초벌용 화장토 조합비

(%)

원료명	화학생분	조합비
카리장석(인도)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10
알루미나(알루미나)	Al_2O_3	5
와목점토(일본)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25
카올린(인도네시아)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30
규석(부여)	SiO_2	25
규산지르콘	$ZrO_2 \cdot SiO_2$	5
계		100

<표 7> 초벌용 화장토와 고화도 안료 혼합비

(%)

색 상 원 료	PR-Yellow (H-200)		T-Blue (H-120)		Green (H-606)		Lilac (H-555)		Violet (영국산)		Red (영국산)	
	초벌용화장토	100		100		100		100		100		100
안 료	8	20	10	35	15	35	20	55	15	40	5	25

<표 8> 중·저화도 유약

색상	Yellow 1	Yellow 2	Blue 1	Blue 2	Violet 1	Violet 2	Green 1	Green 2	Red 1	Red 2	White
번호	20091	GL781	20088	CR902	CR914	20089	CR912	20026	CR913	GL637	CR905
제조사	미국 DUNCAN										

<표 9> 고화도 유약

색상	Yellow	Orange 1	Orange 2	Green 1	Green 2	Green 3	Green 4	Red 1	Red 2
번호	EZ101	EZ034	EZ058	EZ016	EZ018	EZ024	EZ028	EZ063	83
제조사	미국 DUNCAN								한국 석산요업

<표 10> 고화도 유약

색상	White	Pink 1	Pink 2	Blue 1	Blue 2	Blue 3	Blue 4	Violet 1	Violet 2
번호	EZ013	EZ051	86	89	EZ023	EZ066	EZ102	EZ050	87
제조사	미국 DUNCAN		한국 석산요업		미국 DUNCAN				한국 석산요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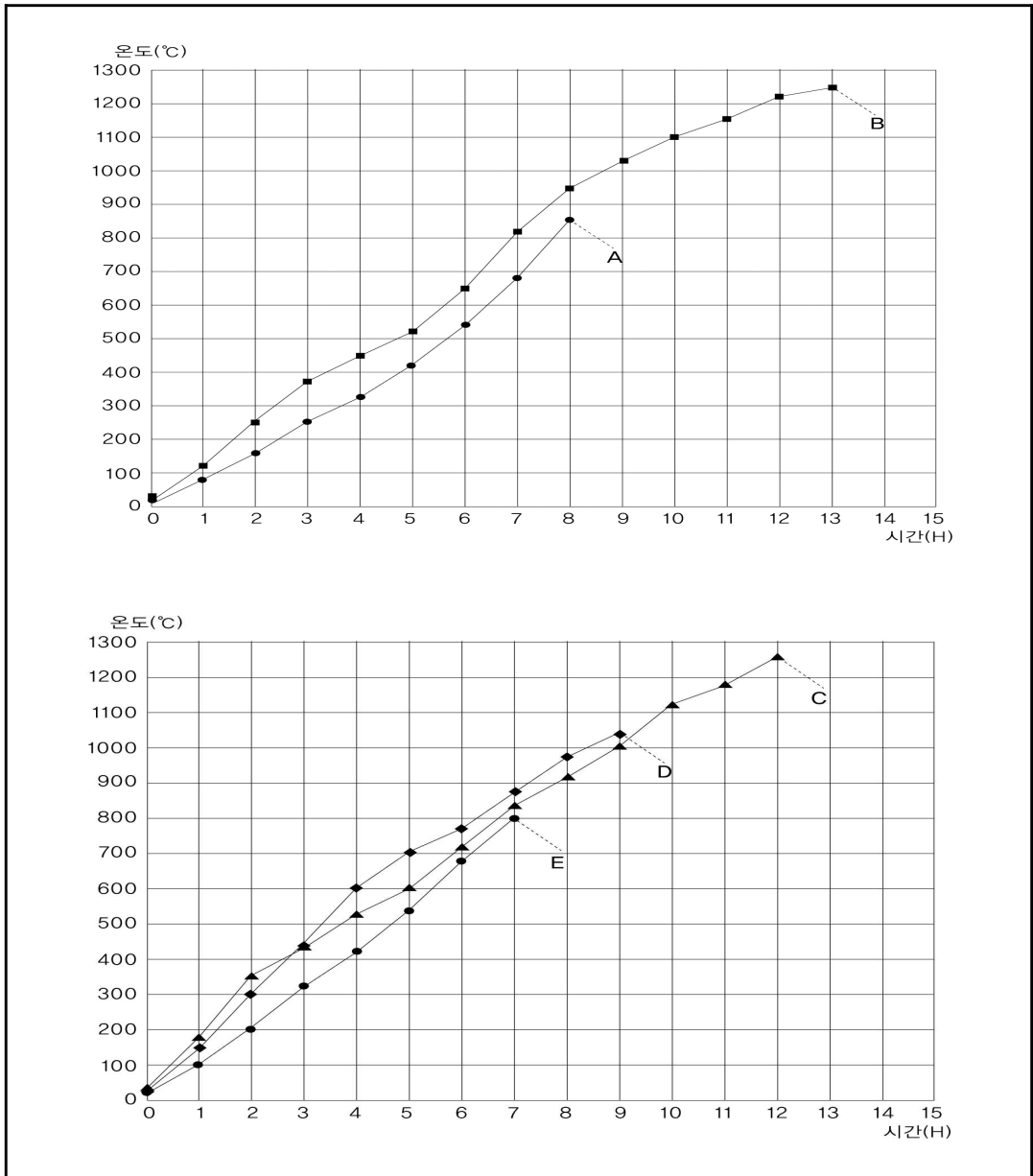
(5) 燒 成

소성은 대부분 0.3m³의 전기가마를 사용하여 산화소성을 하였고, 청자유와 코발트유로 시유된 기물은 최상의 발색을 위하여 0.7m³의 가스가마로 환원소성 하였다.

1차 소성에서는 소성 시 기물의 균열, 파손 등의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5~6시간 동안 약 550℃까지 중간 중간 온도를 유지해가며 온도를 높여주고 태토의 강도와 유약의 흡수성을 감안하여 총 8시간동안 850℃까지 소성하였다. 2차 소성에서는 태토의 원만한 열적 변이를 위해 천천히 온도를 높여주어 약 13시간에 걸쳐 1250℃로 산화소성을 하였으며, 환원소성의 경우 900℃

까지는 산화소성을 하고, 그 후부터는 1250℃까지 12시간 환원소성을 하였다. 그리고 중·저화도 유약을 시유한 경우 1030℃까지 9시간 동안 3차 소성을 하거나, 초벌 된 기물에 바로 중·저화도 유약을 사용하여 2차 소성에서 끝내기도 하였다. 수금장식과 전사장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금과 전사지가 가지고 있는 화학성분들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가마에서 800℃로 3차 소성을 하였다. 소성이 끝난 후 냉기로 인한 유약의 균열과 기물의 파손을 줄이고자 외부 공기를 차단한 채 가마 안에서 약 15시간 동안 가마의 온도를 상온과의 온도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때까지 서서히 냉각시킨 후 기물을 요출하였다.

<표 11> 소성 온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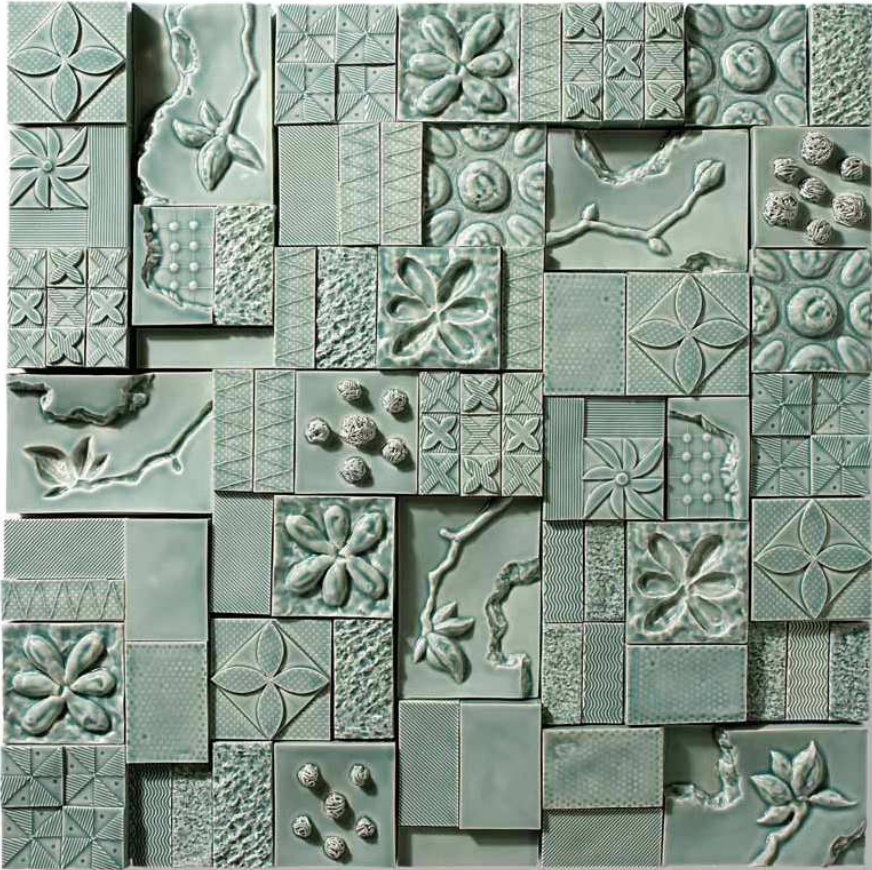


A : 1차 소성 B : 2차 소성 (산화) C : 2차 소성 (환원)

D : 3차 소성 (중·저화도 유약) E : 3차 소성 (수금, 전사)

4) 試作品 説明

【시작품 1】 꿈속을 거닐다



청자유 · 1250℃ · 환원소성 · 900×900×65mm



< 試作品 設置 假想圖 I >

【시작품 2】 그날이 오면 I



투명유, Duncan사 고화도 유약 · 1250℃ · 산화소성 · 640×640×45mm

【시작품 1】 꿈속을 거닐다

본 작품은 다양한 이미지로 내면의 꽃을 표현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이 품고 있는 이상계를 자유 연상한 것이다.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 곳, 애뜻함이 묻어나는 곳, 영생을 꿈꿀 수 있는 곳, 인간의 상상력과 잠재의식이 결정화 된 곳으로 그들의 염원을 충족시켜주는 곳. 꽃을 통해 바라본 그 곳이 우리의 이상계일 것이다.

자연스레 흙의 느낌이 묻어나도록 하거나 여러 가지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여 꽃을 표현하였고 청자유로 시유함으로써 신비스러움을 자아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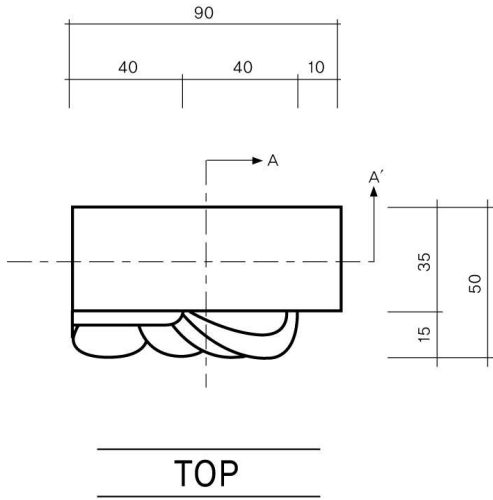
【시작품 2】 그날이 오면 I

이른 봄 창밖의 차디찬 새벽공기 속에서 목련의 하얀 눈꽃송이는 새로운 생명의 희생의 약속을 지키며 고아(古雅)한 자태로 또 한 번의 시간이 왔음을 알려준다. 겨우내 칼바람을 이겨내고 경이로운 생명의 잉태에 온갖 정기를 한데 모은 목련은 우리로 하여금 새날의 소망과 희망을 꿈꾸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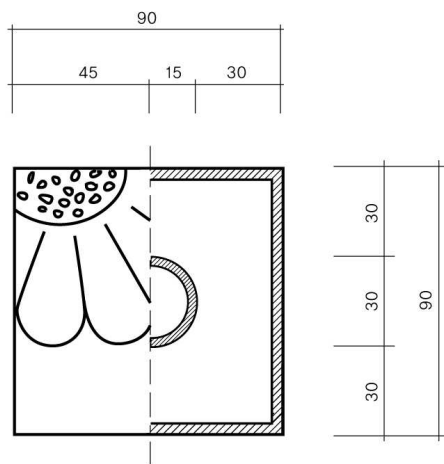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고요한 정적의 시간을 딛고 우리의 꿈이 있는 그 곳, 낙원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흙의 질감을 이용하여 편안한 느낌의 꽃으로 표현하며 고화도 유약을 수채화의 투명하고 맑은 느낌으로 표현하여 훈훈한 봄 향기의 정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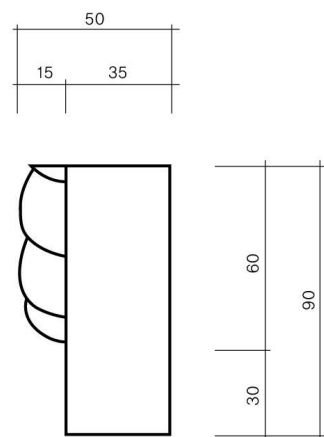
【시작품 3】 도 면



UNIT : mm
SCALE : 1/25



FRONT & SECTION A-A'



SIDE

【시작품 3】 have a dream I



오트밀유, 철유, Duncan사 고화도 유약 · 1250℃ · 산화소성 · 470×470×50mm



< 試作品 設置 假想圖 Ⅱ >

【시작품 4】 그날이 오면 Ⅱ



코발트유, 상회용 전사(800℃) · 1250℃ · 환원소성 · 420×420×60mm

【시작품 3】 have a dream I

본 작품을 통하여 계절의 순화에 따라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거듭하면서 죽었다가도 다시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탄생하는 꽃을 바라보며 인간의 일회성과 순간성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애상하는 인간의 심리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애잔한 소망함을 나타내고자 경직되지 않은 부드러운 이미지로의 꽃으로 표현하기 위해 흙의 느낌이 살도록 성형하고, 고화도 안료 위에 오토밀유로 시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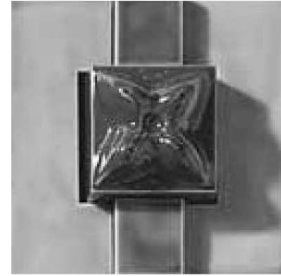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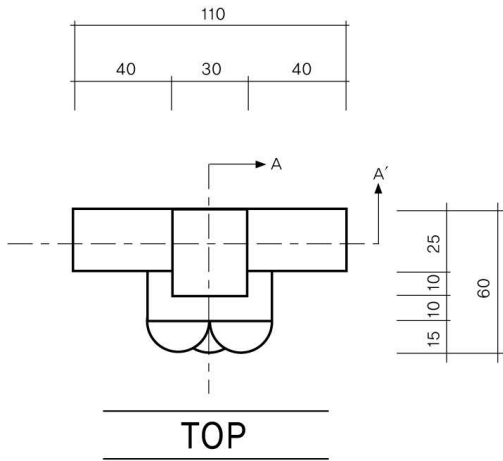
【시작품 4】 그날이 오면 II

인간은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고 피로울 때 인고의 시간을 거쳐 자신이 주인공이 되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며, 더욱 굳건한 모습으로 그 찬란했음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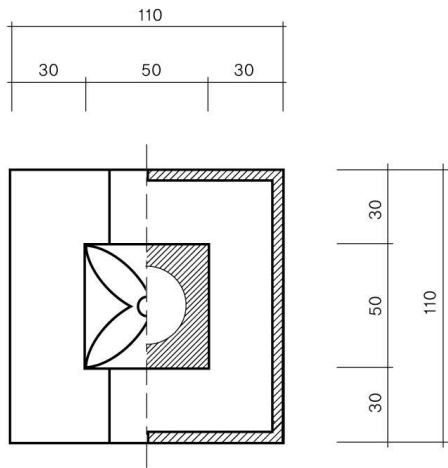
봄의 절세미인이라는 벚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심정은 보름 남짓의 짧지만 깊은 아름다움을 쉬이 잊지 못하고, 새로이 만개할 그날을 그리워하며 기다린다.

각 unit안에 표현된 다양한 texture들은 온 세상의 삼라만상을 은유한 것으로 그것이 개개인의 소중한 추억의 순간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담이 되어주길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제작하였다. 산화코발트의 첨가량을 다르게 하여 4단계로 시유하였고, 흐드러지게 꽃 피우는 모습을 아쉬워하며 사진기에 담은 심정을 적용하여 전사기법으로서 평면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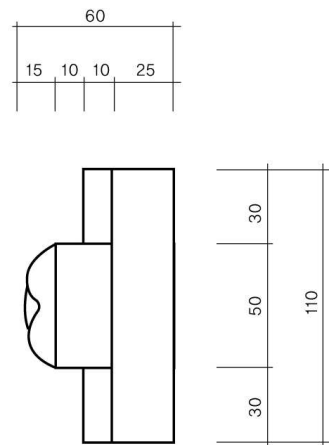
【시작품 5】 도 면



UNIT : mm
SCALE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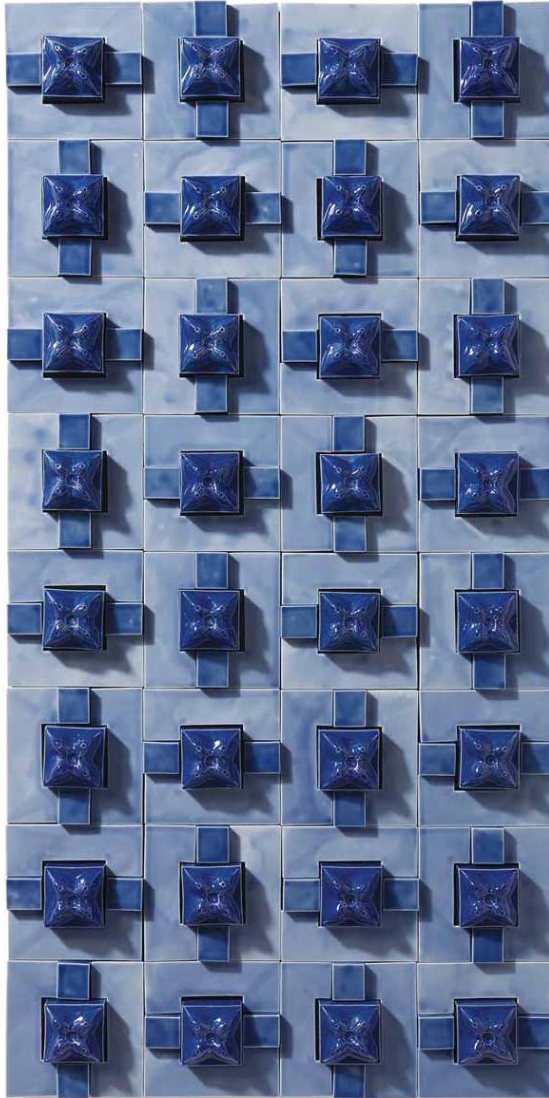


FRONT & SECTION A-A'



SIDE

【시작품 5】 나지막이 기도하다



코발트유 · 1250℃ · 산화소성 · 450×900×60mm

【시작품 6】 꽃비 내리는 날 I



Duncan사 중·저화도 유약(1030℃) · 1250℃ · 산화소성 · 730×910×50mm

【시작품 5】 나지막이 기도하다

수줍은 듯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화려하지 않은 참으로 소박한 꽃 한 송이가 우리의 바쁜 발걸음을 붙잡는다.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작은 자줏빛 제비꽃을 통하여, 드높은 이상만을 쫓는 현대인들이 스스로 낮아짐으로서 마음의 풍요로움, 참 행복을 갖길 바란다.

단순한 사각형태의 unit들을 꽃의 unit들보다 낮은 관점으로 구성하여, 서로 마주보고 하나 되어 상대를 감싸주고 존중함으로 겸양의 미덕이 갖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Blue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색으로 세 단계의 색상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고요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시작품 6】 꽃비 내리는 날 I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들 기억의 단편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가 항상 궁금했고, 감미롭고 향긋한 정취가 그윽하게 풍기는 기억이길 소망했다.

나를 잊지말아달라는 물망초처럼, 때로는 정열적이고 때로는 신비로우며 때로는 지고지순한 순수함을 가진 화안이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스미어 내리는 만인의 꽃으로 간직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단순하고 명료한 꽃 이미지의 표현으로 다양한 자아의 단상을 드러내며, 자칫 심심해보일 수 있는 형태에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화도 유약을 다채로이 사용하였다.

【시작품 7】 꽃비 내리는 날 II



투명유, Duncan사 고화도 유약, 수금(800℃) · 1250℃ · 산화소성

460×1220×80mm



< 試作品 設置 假想圖 III >

【시작품 7】 꽃비 내리는 날 II

동백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낙화하는 꽃이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땅에 기대어 흠내음을 맡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한다.

본 작품은 이승에서의 헛된 집착을 부여잡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 가장 영화로운 순간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동백의 겸손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활짝 피어나기를 염원하는 작품이다.

개개인의 아름다운 순간과 기억을 다양한 꽃 모양으로 표현하였고, 낙화하는 모습을 절망이 아닌 영원불멸한 생명력으로 기억하고자 밝고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고화도 유약을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인 수금의 사용으로 그 순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하늘로부터 흠날려 땅에 내리는 흐름이 되어지도록 하였다.

【시작품 8】 have a dream II



투명유, 상회용 전사(800℃) · 1250℃ · 산화소성 · 770×460×10mm

【시작품 9】 꽃비 내리는 날 Ⅲ



색화장토, 투명유, 철유 · 1250℃ · 산화소성 · 490×490×35mm

【시작품 8】 have a dream II

넓은 들판에 만발한 아름다움을 뺏어내는 꽃들을 바라보며 인간은 인생을, 청춘을 노래한다. 푸르른 젊음과 열정, 패기가 넘치는 그 순간을 영원토록 누리고 기억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희망찬 밝음을 표현하기 위해 투명유 시유로 소성한 후 고명도의 색감으로 전사장식을 함으로써 싱그러운 청춘과 열정으로의 예찬함을 유도하였다.

【시작품 9】 꽃비 내리는 날 III

수줍은 듯 여리디 여린 꽃잎을 한 장씩 펼치며 마침내 함박웃음을 터트리 는 작약으로부터 때때로 천태만상의 번민에 시달려 여유를 잃고, 웃음을 놓쳐버리는 현대인을 연상하곤 한다.

적박하고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삶이 달려올 때도 그 함박웃음의 잔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꽃을 피운다면 어느덧 삶 속의 무릉도원을 거닐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세상에서의 번뇌와 활짝 핀 웃음을 색감의 대비를 이용하여 어두운 발색의 철유와 따스하고 밝은 느낌의 파스텔톤 색화장토를 사용하였다.

Ⅲ. 結 論

예술표현에 있어 자연을 원용하거나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연이 예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자연의 일부인 꽃을 정제된 연구자의 체험을 통해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식화된 공간을 창의적인 구성으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을 환기시키는 기능과 미적체험을 통한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조들이 가졌던 꽃에 대한 미의식을 연구하고, 그 시대의 가치관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시대의 올바른 역사를 인식할 수 있었다.

둘째, 꽃의 이미지로 제작된 도자 벽장식은 다양한 공간에서 독특한 환경 구성을 할 수 있었다. 자연의 일부인 꽃을 통해 획일화된 공간에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색채에 대해 인간이 갖는 심리적 반응과 연상을 통하여 색채가 인간의 생활에 미적인 호소를 완성시키고, 유색의 다양함으로 여러 심상을 대변 해주며 작품의 구성에 조직성을 부여해줌을 인지함으로 예술표현에 있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과정 중 느꼈던 감성적 체험과 시행착오 등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 자연과 생활공간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부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고성중 · 고필중 공저, 『도시환경과 벽화디자인』, 미진사, 2003
- 김민수, 『내게로 다가온 꽃들』, 한얼미디어, 2005
- 김병억, 『도예장식기법』, 태학원, 2002
- 김수석, 『색채와 예술』, 지구문화사, 1976
- 김수평, 『조형의 원리』, 대한성공회 출판부, 1976
- 박용숙, 『한국의 시원사상』, 문예출판사, 1994
- 서길용, 『도예 이론과 실기』, 신광출판사, 2006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 1998
-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 주균도, 『미학 에세이』, 청년사, 1989
- 한국색채학회, 『색이 만드는 미래』, 도서출판 국제, 2002
- Frank H. Mahnke, 최승희 · 이명순 역, 『색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도서출판 국제, 2002
- H. Read, 『The Philosophy of Modern Art』, Horizon Press, 1953
- Rene Hueghe,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60
- 김길홍, 「도시환경 색채와 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이경미, 「한국 전통 문양에 나타난 상징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허영미, 「도시환경 조각과 색채의 상호보완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Ceramic Mural Decoration, on an Image of Flower

Yang, Ji Woon

Major in Industrial Ceramics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ympathize of nature and human had inevitable relationship since the beginning of mankind. This sympathy sublimated as the art. The artistic presentation of nature had been develop variously when the beauty of nature has become the matrix for artistic sense of beauty. Among the others, the flower had become an artistic expression and interest of human of all ages.

We can find out that our ancestors expressed the flower on their crafted products and clothes or accessories because they thought the symbolic meaning which developed through moral value and emotion formed with religious life was more important than just external beauty.

Our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ancestors' image of flower which alternated flower and human's will of living and emotion trough

various pattern of flower in traditional crafted product and express formatively the flower that sympathize with human's emotion. We also tried to manufacture as ceramic mural decoration which can be sympathize with aesthetic speculation of modern. This needed to bring out the flower which is part of nature to living space and grope the modern living culture and nature's element of beautiful part.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we used the china clay as and particle of ceramic and either slip casting or pressure techniques from plaster mold for mass production. We had first firing at 850°C and use cobalt glaze, celadon glaze, and enamel with high definition from Duncan to express various color of flower. We had second firing at 1250°C. We also fired works that used enamel with low and medium definition at 1030°C, For last, we had third firing at 1030°C for works that used gold glazes decoration and over-glazes decoration.

For manufacturing the ceramic mural decoration that coincided with emotion of people today by revaluating the image for the beauty of flower to modern visuals in this research, we can expect it to connect schematized environment with innocent nature. It will also make our living space more beautiful.